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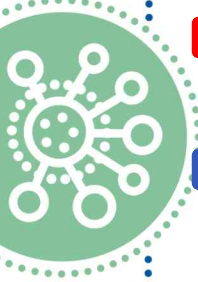




목 차

	인슈어테크 동향	20
정책	- 자동차보험 사고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	20
	- 「K-Fintech 30」 2차에서 인슈어테크 우수기업 3곳 선정	21
기업	- 디지털 기반 화재 예방 솔루션, 보험료 절약효과도 기대?	22
	- 500쪽 넘는 약관 1분 만에 분석...보험사 '에이전트'된 생성형 AI	23
	- '가입 더 쉽고 빠르게'...보험업계, 디지털 서비스 특허 경쟁	24
	- 보험사기 절반은 자동차보험...손보사, AI 고도화로 선제적 대응 박차	25
	- 디앤라이프-하나생명 MOU...암보험에 AI 맞춤 의료정보 제공	26
	- 메리츠화재, 해외여행보험 'Open API'로 고객 편의성 높여	2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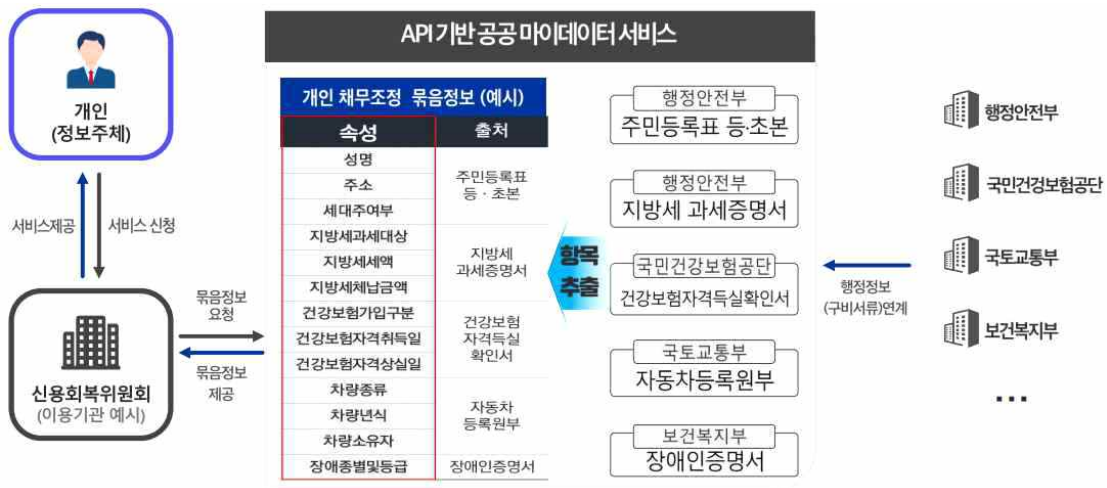




자동차보험 사고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

-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힘**
 -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 보험금 청구를 해야 했으나,
 -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사고 현장에서 쉽게 보험금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짐
-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**
 -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'본인정보 제공'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음
 -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뒤로 꾸준히 확대하면서 현재는 주민등록등본, 납세증명서 등 행정·공공기관이 보유한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, 신용대출 등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음
 - 금융 분야에서는 여신, 수신, 신용평가 가점부여,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2023년 기준 연 2억 건 이상이 활용되고 있음

<공공 마이데이터 개념도>



-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**
 -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

출처 : 행정안전부(2024.09.18.)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



「K-Fintech 30」 2차에서 인슈어테크 우수기업 3곳 선정

- 금융위원회는 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」에서 「K-Fintech 30」에 선발된 유망 핀테크 기업 10개사를 선정, 인슈어테크 기업 3개사를 포함
 - 선정된 인슈어테크 기업에는 스몰티켓, 어메스, 해빗팩토리가 있음
 - 선정 기업에게는 정책금융 지원한도·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,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, 핀테크 전문컨설팅,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맞춤형 집중지원을 제공할 예정
- 스몰티켓은 펫 헬스케어 플랫폼이자 위험 관리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펫 연관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
 - 펫 푸드 딜리버리 기업의 시간제 라이더를 대상으로 시간제 이륜차 보험을 기획 및 개발하여 공급 중
 - 혁신금융서비스인 펫 건강증진형 리워드는 현재 Pet Ping 플랫폼을 통해 실증 중이며 약 7만 명의 반려인과 4-5만 마리의 반려견이 산책, 섭식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Pet Ping Shop을 이용 중
 - 위 데이터는 향후 펫 소액단기 보험사 설립 시 활용하여 차별적인 위험요율 산출과 멤버십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펫 보험 상품을 선보일 계획
- 어메스는 자동차보험 보상 자동화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보상 과정을 효율화
 - 자동차 정비소에서 청구되는 수리내역서를 해당 차량의 제조사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리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에 활용
 - 기존 아날로그 전통적 손해사정을 데이터 활용 검증을 통한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전환하여 업무 단순화와 소요시간 단축, 품질향상, 프로세스 최적화 등 효율성 극대화
- 해빗팩토리는 AI/데이터 기반 보험 추천 및 판매 플랫폼 ‘시그널플래너’를 제공
 - 보험계약 1000만 건, 보장 1억 건 이상을 분류·분석하여 보험분석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이해하기 쉽도록 카테고리화, 보장 항목별 범위와 금액 등을 알기 쉽게 해설
 - 고객 카드데이터를 자동인식해 의료비 청구를 앱 내에서 바로 진행하는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고객 성별, 나이 등 필요한 보장항목에 따라 전 보험사 상품을 비교·추천해줌





디지털 기반 화재 예방 솔루션, 보험료 절약효과도 기대?

-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솔루션은 ‘사후 보상’과 ‘사전 예방’으로 나뉘는데 최근 보험업계에서 사전 예방용 솔루션 개발에 주목
 - 사후 보상은 이미 발생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기업의 재정 측면에서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전 예방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,
 - 화재와 같은 재난의 경우 인명 피해나 고객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
- 최근 등장하는 사전 예방용 솔루션에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화재예방용 솔루션이 그 대표적인 사례
 - 기존 아날로그 화재 수신기(P형 수신기)의 경우, 감지기가 정상인지 혹은 화재가 발생했는지 등의 여부를 이진값(0과 1)으로 표시하여 알려주는 단순한 기능만을 제공
 - 디지털 화재 수신기(R형 수신기)의 경우, 감지기로부터의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처리해 정교하고 정확한 정보 처리가 가능하고 감지기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
 - 지능형 원격감시시스템의 경우 디지털 화재 수신기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운영자가 원격지에서 화재예방용 솔루션의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

<원격 감시 시스템>



- 이러한 사전 예방용 솔루션의 도입은 보험료 할인 등으로 계약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
 - 기본적인 소화설비와 더불어 자동화재경보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참고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할인제도가 그 사례
 - 이러한 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뿐 아니라 안전한 사업장을 유도하고 보험가입을 촉진시키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음

출처 : 동아닷컴(2024.08.29.) 디지털 기반 화재 예방 솔루션, 보험료 절약효과도 기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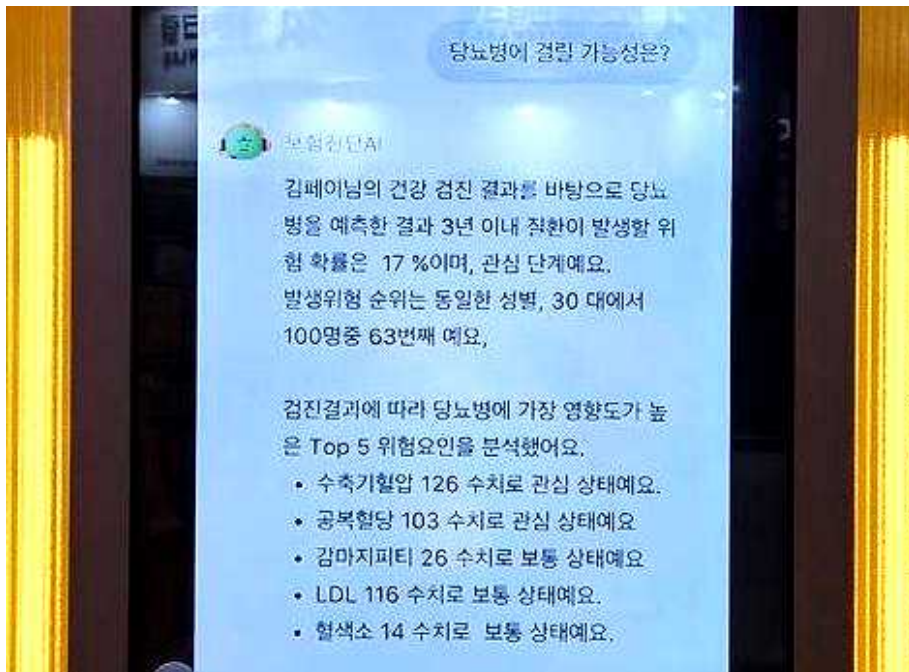




500쪽 넘는 약관 1분 만에 분석...보험사 '에이전트'된 생성형 AI

- 인슈어테크 서비스 제공 기업 에임스(AIMS)를 비롯한 보험업계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보험사의 서류와 약관 확인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
 -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500쪽이 넘는 약관을 분석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으나,
 -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해 약관 등 서류에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발췌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, 보험사 직원이 일일이 서류와 약관을 확인할 필요없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
-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탄생으로 AI에 고객의 질병과 치료 내용 등 정보를 제공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물어볼 수 있어 AI와 사람의 협업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
- 그러나 보험산업이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기술을 빠르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한계가 존재하고 투자비용 대비 이윤이 불확실해 투자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
 - 카카오페이의 '보험진단 AI' 서비스는 고객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을 보여주나 회사가 보험을 추천하거나 판매할 수 없어 관련 상품은 설계사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침

<카카오페이의 '보험진단AI'>



-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AI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

출처 : 조선일보(2024.09.02.) 500쪽 넘는 약관 1분 만에 분석...보험사 '에이전트'된 생성형 AI





‘가입 더 쉽고 빠르게’...보험업계, 디지털 서비스 특허 경쟁

- 보험사들이 디지털 금융시대에 발맞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정보기술(IT) 및 인공지능(AI) 기술 관련 특허 경쟁에 나서고 있음
- D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설계 및 인수 업무를 지원하는 ‘AI 비서 시스템’에 대한 특허를 획득
 - AI 비서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별 보장 분석과 맞춤 설계, 사전 인수심사를 동시에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,
 - 정보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기존 가입 내용과 보장 내용을 분석해 새로운 가입 설계 내용을 정한 뒤 사고 정보 등을 확보해 인수심사를 미리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
 - 해당 시스템은 데이터 학습이 쌓이면서 더욱 정교화되고 있음
- 삼성화재는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‘장기U’에 대한 특허를 획득
 - 장기U 시스템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고려해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는 최적의 담보를 빠르게 찾아주며 피보험자에 따라 할증이나 부담보와 같은 조건부 처리도 가능
 - 또 고객이 고지한 내용과 보험금 청구 이력을 살펴 AI가 스스로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알려줘 신속한 심사를 도움
 - 삼성화재는 지속적인 학습을 거쳐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용 범위를 전 상품으로 확대해 2024년 3월 기준 심사 승인율이 90%에 달함
- 한화생명은 ‘1대다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’에 대해 특허를 획득
 - 1대다 서비스는 디지털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들은 상담사와 얼굴을 보며 보험 문의부터 본인인증, 서류 제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음
 - 이는 보험계약 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다른 계약 관계자들이 일정을 맞춰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기존 가입 과정의 불편함을 개선한 시스템





보험사기 절반은 자동차보험...손보사, AI 고도화로 선제적 대응 박차

- 최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다양화되고 진화한 보험사기 행위에 대응하여 보험사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
 - 보험사기는 사고의 고의적 유발, 위장 및 날조, 사기 계약, 사후가입 또는 피해 과장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 및 지능화되고 있음
 -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1조818억보다 3.2% 증가하고 적발 인원은 109,522명으로 전년 102,672명 대비 6.7% 증가
- 보험사기자 관련 최대 데이터를 보유한 삼성화재가 기술 보호를 위해 자사 보험사기 방지시스템(IFDS, 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)에 대한 특허를 취득
 - 보험사기 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보험사기 소송 건수는 삼성화재가 640건, DB손해보험이 193건, KB손해보험이 80건, 현대해상이 64건, 메리츠화재가 20건 순으로 집계
 - IFDS는 ‘보험사기 분석 방법 및 시스템’이라는 명칭으로 특허가 출원되었고, 갈수록 조직화, 지능화되어 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후탐지 중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전탐지 예측 기능이 강화됨
- IFDS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 기반해 보험사기와 연관된 개인과 불법 업체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
 - 해당 시스템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다양한 위험인자로 구성된 지표를 기초로 보험사기 유의 고객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은 보험사고 건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 및 분석결과를 제공
 - 또 혐의자별 점수를 바탕으로 관계도를 분석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분석력도 개선하여 사고를 접수한 고객과 연관된 인적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판단대상 고객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음
- DB손해보험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공모관계를 찾아내는 시스템인 ‘DB T-시스템 (DB Total Ananlysis System)’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
- 현대해상도 데이터·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 ‘Hi-FDS’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으며, KB손해보험도 자동차보험 AI 자동심사 시스템으로 사고 발생확률을 예측하고 있음

인슈어테크



출처 : 녹색경제신문(2024.08.22.) 보험사기 절반은 자동차보험...손보사, AI 고도화로 선제적 대응 박차



디앤라이프-하나생명 MOU...암보험에 AI 맞춤 의료정보 제공

- 암 환자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디앤라이프가 하나생명과 암 환자 맞춤형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
 - 이번 협약은 디앤라이프의 암 환자 유형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생명 암 상품 보험자에게 인공 지능을 적용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보험 상품과 개인화된 의료 콘텐츠 등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
 - 디앤라이프는 데이터 기반 암 환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‘암오케이’ 서비스를 제공하여 암 종류, 병의 시기 등에 따라 치료 여정을 세분화하고 대장암, 폐암, 췌장암의 치료 단계별 정보와 치료·운동·재활·식이 등 암 환자들의 일상 관리를 도움

<하나생명과 디앤라이프의 업무협약 체결식>



- 디앤라이프와 하나생명 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암 환자들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힘
 - 디앤라이프 측은 암 환자들에게 치료 여정에 따른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암 환자들을 돕겠다고 하였으며,
 - 하나생명 측은 암 전문 의료진들의 올바르고 정확한 맞춤형 의료정보와 함께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할 것이라 밝힘

출처 : 머니투데이(2024.09.03.) 디앤라이프-하나생명 MOU...암보험에 AI 맞춤 의료정보 제공





메리츠화재, 해외여행보험 'Open API'로 고객 편의성 높여

- 메리츠화재가 블록체인 기술 기업 리트러스트와 'Open API'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여행보험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힘

<메리츠화재와 리트러스트 업무협약 체결식>



- 메리츠화재가 API를 공개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제휴 플랫폼에서도 보험 가입과 조회,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됨
 - 그동안 소비자들은 여행사, 항공사 등 제휴사를 통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와의 데이터 연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간 계약 조회와 보상 청구에 불편함이 많았음
 - Open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는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
 - 메리츠화재는 리트러스트의 '인슈어트러스트' 플랫폼에서 전산 시스템 및 API를 공유해 여행 일정과 동반자 정보만으로 빠르게 메리츠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
 - 또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톡 디지털 자산 지갑 '클립'을 통해 언제든지 보험증서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대체불가토큰(NFT) 형태로 실제 보험증서를 제공
- 메리츠화재와 리트러스트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여행보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들이 편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

인슈어테크



출처 : 연합인포맥스(2024.07.02.) 메리츠화재, 해외여행보험 'Open API'로 고객 편의성 높여